

## O-13

### 인삼의 재배조건에 따른 수삼 저장성에 관한 연구

손현주, 노길봉, 이광승, 성현순

한국인삼연초연구원

논에서 직파한 것(논직), 논에서 이식한 것(논이), 밭에서 직파한 것(밭직), 밭에서 이식한 것(밭이) 등 네가지 재배조건에 따른 4년근 수삼의 저장성을 조사하였다. 수삼 시료는 물로 씻은 후 적변과 지근탈락이 없는 것중 개체무게가 35g 내외인 것만을 골라 한뿌리씩 PP-vinyl 다중 film bag(20x30cm, 0.09mm)에 넣고 밀봉하여 25℃, 10℃ 또는 4℃에서 저장하면서 개체무게 감소율과 곰팡이발생정도, 연부 진행정도, 경도 불량정도, 변색유무등 부패와 관련된 외관품질을 조사하였다. 25℃에서 30일간 저장하였을 때 개체무게 감소율은 8.7-11.1%로 재배조건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았으며 부패가 일어난 빈도는 논직(93%), 논이(62%), 밭직(48%), 밭이(46%)의 순으로 논에서 직파한 것이 가장 높았고 밭에서 직파한 것과 밭에서 이식한 것은 비교적 낮았다. 10℃에서 90일간 저장하였을 때 개체무게 감소율은 5.3-5.8%로 재배조건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부패가 일어난 빈도는 논직(58%), 밭직(13%), 밭이(13%), 논이(10%)의 순으로 논에서 직파한 것이 가장 높았고 논에서 이식한 것, 밭에서 직파한 것 및 밭에서 이식한 것은 비교적 낮았다. 한편 4℃에서 105일간 저장하였을 때 개체무게 감소율은 2.8-4.0%이었으며 부패가 일어난 빈도는 논직(33%), 밭직(20%), 논이(0%), 밭이(0%)의 순으로 논에서 직파한 것이 비교적 높았고 논에서 이식한 것과 밭에서 이식한 것은 전혀 부패가 일어나지 않았다.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삼은 논에서 직파한 것의 저장성이 가장 나쁘고 논에서 이식한 것, 밭에서 직파한 것 및 밭에서 이식한 것의 저장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.